충청남도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 통합지원방안: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김 종 욱(청운대학교)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 구 요 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성배우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홍성군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결과, 남성배우자들은 결혼이주여성 못지않게 국제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혼단계부터 이들은 배우자를 정하거나 혼인비용 지출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가족형성단계에서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으며 이를 극복할 만한 여건이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단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하는 배우자의 무능력을 아쉬워하면서 항상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자녀가 소외당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으며 가족역량강화단계에서도 이들은 예상보다 일찍 다가온 배우자의 모국 방문과 부업 문제로 집안의 안정과 물질적 이익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더욱이 남성배우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보다 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결혼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타 사회단체의 관심 및 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각급 지원 기관과 단체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전용 프로그램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는 남성배우자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들이 하나가 되어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남성배우자들을 결혼이주여성과 마찬가지의 사회보장체계 속으로 포용할 것과 조악하고 부실했던 남성배우자 지원프로그램을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지난 몇 년간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무엇보다도 먼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차 례

I. 서 론 ····· **1**

II. 남성배우자의 생활 실태 ····· **3**

III.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 조사 ····· **5**

1. 결혼준비기 남성배우자에 대한 실태 분석 ····· 6
   가. 결혼비용으로 인해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 7
   나. 부정확한 결혼 정보로 인한 갈등 ····· 10
2. 가족형성기 남성배우자에 대한 실태 분석 ····· 13
   가. 언어소통의 장벽 ····· 14
   나. 남성배우자를 위한 교육의 부족 ····· 17
3. 자녀양육 및 교육기 남성배우자에 대한 실태 분석 ····· 20
   가. 다문화가족의 육아에 관련된 차별 ····· 20
   나. 육아와 관련된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만의 애로 ····· 22
4. 가족역량강화기 남성배우자에 대한 실태 분석 ····· 25
   가. 여성배우자의 모국 방문 ····· 25
   나. 여성배우자의 창업 및 취업 ····· 28

Ⅳ. 홍성군 남성배우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 ····· **32**

V. 결론 ····· **41**

■ 참고문헌 ····· 43
■ 각 변수의 빈도표 ····· 44
■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지 ····· 64

표 차 례

<표 III-1> 결혼 행복도 ····· 6
<표 III-2> 연평균수입Ⅹ결혼비용 교차표 ····· 8
<표 III-3> 결혼비용Ⅹ현재결혼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교차표 ····· 9
<표 III-4> 배우자를 만난 경로Ⅹ결혼정보의 정확성 교차표 ····· 10
<표 III-5> 배우자출신국가Ⅹ혼인중개업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교차표 ····· 12
<표 III-6> 여성배우자의 출신국가Ⅹ여성배우자와 한국어소통정도 교차표 ··· 14
<표 III-7> 군내 거주지역Ⅹ남성배우자의 지원활동 불참이유 교차표 ····· 16
<표 III-8> 군내 거주지역Ⅹ남성배우자 지원프로그램의 충분 정도 교차표 ··· 17
<표 III-9> 여성배우자의 출신국가Ⅹ남성배우자 지원활동에 대한 불만족이유 교차표 ····· 19
<표 III-10> 여성배우자 출신국가Ⅹ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며 염려되는 점간의 교차표 ····· 21
<표 III-11> 남성배우자의 나이Ⅹ현재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염려 간의 교차표 23
<표 III-12> 여성배우자 출신국가Ⅹ자녀 양육시 가장 힘든 점의 교차표 ····· 26
<표 III-13> 결혼한 연도Ⅹ결혼 방문시 처가 방문 횟수간의 교차표 ····· 27
<표 III-14> 남성배우자 연평균 수입Ⅹ처가 방문 시 드는 비용간의 교차표 · 24
<표 III-15> 군내 거주지역Ⅹ배우자가 취창업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간의 교차표 ····· 29
<표 III-16> 배우자출신국Ⅹ지자체 및 다문화가정지원단체의 취창업 지원에 만족도 간의 교차표 ····· 30

그 림 차 례

[그림 IV-1] 홍성군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 통합지원 체계도 ····· 31

Ⅰ. 서 론

최근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새로운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사회 관련 문제가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 혼인관련 인권 침해, 출산 및 육아,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이해 등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다문화가족의 또 다른 축인 남성배우자와 향후 다문화사회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후세인 그 자녀들이 연관된 사회문제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남성배우자들에 대한 소외와 무관심의 결과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인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구타와 폭행, 잔인한 살해 행각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언어소통의 장애와 성격 차이, 의처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불화와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가정파탄으로 인한 여성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불법 체류, 정체성이 불분명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위자료 지급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다문화사회에 그늘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문화가족 내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전락해 가고 있는 남성배우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특별 세제 혜택이나 전용시설 등의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고충 상담과 취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성적인 요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 또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자신의 사정을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는 남성배우자들 특유의 관습과 생계활동에 몰입해야 하는 사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간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순간적

인 자제력 상실로 인해 파렴치한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호소에만 진정성을 부여하고 남성배우자는 몰지각한 폭력 남편이 되어가는 사례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1)]

이 글은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성배우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를 연구한 이근무 김진숙(2009)의 연구와 '남편의 경험'에 대한 최지영(2009)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충청남도 지역의 특성은 다루지 않았으며,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통한 종합적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 사례로 홍성군을 선택하였다. 이는 홍성군이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도 농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홍성군은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등 11개 읍면으로 약 8만 9천명이 거주하는 도 농 지역의 군 단위 행정구역이다. 2009년 말 현재 군내에는 362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미등록 가정을 고려하면 4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59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설문지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모두 다루었으며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종합적 분석방법을 시도하였다.

1) H004과의 인터뷰. (2010/10/9).

II. 남성배우자의 생활 실태

홍성지역에 최초로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최초 시기에는 주로 통일교를 통한 계획 이주로 일본 여성들이 정착하였고 이후 일부 한국계 중국 여성도 들어왔으나 전체 수가 1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제결혼이 농촌사회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홍성에도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증하였다.

현재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전형적인 남성배우자의 표본은 40대의 중년으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농축산업, 자영업과 직장생활을 하는 남성들로서 연평균 1,000~3,000만원의 수입과 1~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홍성 읍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이다. 전체 400여 가구 중 임의로 추출한 59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의 전형은 연령 면에서 볼 때 중년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59명 가운데 20대가 1명, 30대가 18명, 40대가 36명 그리고 50대가 4명으로 30대와 40대가 91.5%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0명으로 17%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41명으로 70%, 전문대학교 및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12%를 차지함으로써 비교적 평균 이상의 학력을 보여 주었다. 이들의 직업은 도 농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농축산업 종사자는 18명, 상업 및 자영업자는 9명,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 생활자가 14명 그리고 기타 직종이 15명을 차지하였으며 무직자는 2명으로 전체 가운데 3.4%에 해당하였다. 연평균 소득액은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8명인데 비하여 2,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하가 18명,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7명이었다. 이들 중 2000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가 2명, 2001~2003년에 결혼한 남성이 5명인데 비해 2004~2008년 기간 중에는 23명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29명이 결혼

하여 충청남도 내 다른 시, 군과 마찬가지로 홍성군에서도 지난 5년 사이에 국제결혼이 급증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59명의 설문지 응답자가운데 16명이 아직 자녀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 중 27%에 이르는 숫자였다. 나머지 43명 가운데 자녀 1명을 둔 사람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2명인 경우는 15명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는 4명이었다. 거주지 측면에서는 29명이 홍성읍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면 단위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표본 추출과정의 자의성으로 인해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들의 여성 배우자는 우선 연령 면에서 20대가 42명으로 전체 71%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30대가 14명으로 24%, 40대 이후는 3명으로 5%에 불과하였다. 학력 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6명으로 44%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은 19명으로 32%, 전문대학교 졸업이 10명으로 17% 그리고 대학교 졸업도 4명으로 7%를 차지하였다. 여성 배우자의 출신 국가별 배경은 중국인이 8명, 한국계 중국인이 1명, 베트남인이 32명, 필리핀인이 12명, 캄보디아인이 4명, 우즈베키스탄인이 1명으로 최근의 추이를 반영하듯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았다.

Ⅲ.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실태 조사

본 조사는 연구 여건상 충청남도 내 결혼이주가정의 남성배우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대신 조사대상을 도내에서 도 농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홍성군을 택하여 랜덤으로 표본추출을 시도하였다. 이 조사는 설문지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2010년 8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의 측정도구는 남성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직업, 연 수입, 혼인연도, 종교, 자녀수, 거주지 등 8개의 변수로 구성하였고 이와 함께 여성배우자를 위해서는 연령과 학력, 출신국가, 출신국내 지역 등 4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편 결혼준비기(결혼유형, 결혼비용, 결혼정보의 정확도, 중개서비스의 만족도, 출입국서비스 만족도 등), 가족형성기(배우자와 한국어 소통, 배우자의 한국어 부진 이유, 배우자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배우자에 대한 실망 정도, 남성배우자 교육에 참여 의사, 남성배우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남성배우자 교육의 불참 이유 등), 자녀양육 및 교육기(자녀양육의 분담 정도, 선호하는 자녀양육 방식, 보육기관 이용상 애로점, 자녀에 대한 집단 따돌림의 경험,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걱정 등), 가족역량강화기(배우자 취창업을 위한 직종, 배우자 근로가능시간, 배우자 창업방식, 배우자 예상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 만족도 등)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자가 개발한 57개 변수를 구성하였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주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다음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과 남성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이주 가족의 생애 주기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교차 분석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였다.

1. 결혼준비기 남성배우자에 대한 실태 분석

홍성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남성배우자의 대부분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여러 모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표시했다. 아래의 <표 III-1>에 의하면, '현재 결혼생활이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0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그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37명이 '그렇다'고 확신하였다.

<표 III-1> 결혼 행복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그렇다.	16	27.1	30.2	30.2
그렇다.	21	35.6	39.6	69.8
중간이다.	13	22.0	24.5	94.3
아니다.	2	3.4	3.8	98.1
절대 아니다.	1	1.7	1.9	100.0
합계	53	89.8	100.0	
시스템 결측값	6	10.2		
합계	59	100.0		

이러한 배경에는 그 동안 농촌지역에서의 혼인이 쉽지 않았던 과거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정서가 작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삶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인하여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다시 과거의 외롭고 불행했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2)]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진실로 만족하는 것일까? 2007년 천안시 베트남 신부 살인사건과 얼마 전 2010년 7월에 발생한 베트남 신부 살인사건 그리고 전국의 쉼터에서 고단한 심신을 달래고 있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의 폭력과 가혹행위로부터 탈출하려는 현상은 어쩌다 발생한 불행한 사건일 뿐인가? 이번에 실시한 남성배우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배우자들 역시 결혼 생활에 만족과 불만, 스트레스, 애로사항을 동시에 나타냈다. 외국 여성과의 결혼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이들의 고충은 결혼준비기와 가족형성기, 자녀 양육 및 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에서도 계속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가. 결혼비용으로 인해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남성 배우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혼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결심, 결혼중개업체 선택, 결혼비용 마련, 행정수속 및 해외 맞선, 혼인신고 및 배우자의 출입국 업무 등과 같은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과 처음부터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남성 배우자들에게 가장 큰 최초의 어려움은 결혼중개업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과다한 결혼 비용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현재까지도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혼중개업체들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가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결혼정보업체에 의한 과다한 수수료의 수취를 미연에 방지할 정확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결혼 자체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H001과의 인터뷰 (2010/10/23). 그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외국인 아내와의 마찰도 빈번해지나 만약 아내가 가출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인 아내의 경우와 달리 속수무책으로 재결합 가능성이 희박해지므로 자신의 대처가 더욱 조심스럽고 소극적이 된다고 하였다. H005 는 이 같은 예기치 못한 결별과 파탄이 두려워 아내의 친정 방문조차도 본의 아니게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표 III-2> 연평균수입×결혼비용 교차표

		결혼비용					합계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연평균수입	1000만 미만	4	1	2	1	0	8
		7.4%	1.9%	3.7%	1.9%	.0%	14.8%
	1000-2000만	3	7	8	3	0	21
		5.6%	13.0%	14.8%	5.6%	.0%	38.9%
	2000-3000만	3	2	9	3	1	18
		5.6%	3.7%	16.7%	5.6%	1.9%	33.3%
	3000만 이상	1	3	3	0	0	7
		1.9%	5.6%	5.6%	.0%	.0%	13.0%
합계		11	13	22	7	1	54
		20.4%	24.1%	40.7%	13.0%	1.9%	100.0%

위의 <표 III-2>에 의하면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남성 배우자들은 결혼 비용으로 평균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응답자 70%정도의 연평균 수입이 약 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구체적으로 연 수입이 1,000~2,000만원인 남성 배우자 21명(38.9%) 중에서 8명(14.8%)이 1,500만원 가량을 혼인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수입이 2,000~3,000만원인 18명(33.3%) 중에는 9명(16.7%)이 역시 1,5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다. 도시 서민층의 수입과 비교해 결코 수입이 크게 적지 않은 홍성지역의 남성배우자들이지만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연봉 대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더욱이 연 수입이 1,000만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소가 의무적으로 책정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혼인 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까지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다한 결혼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은 그

대로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아래 <표 III-3>에 의하면 응답한 남성배우자 중 1/3가량이 현재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전체의 37.7%를 차지한 1,500만원 가량의 혼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 20명 중 7명(13.2%)이 이 문제로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표 III-3> 결혼비용X현재결혼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교차표

		현재결혼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합계
		배우자와 불화관계	기타가족과의 불화	육아 및 자녀교육	경제적 어려움	기타	
결혼비용	500만원 이하	0	1	2	5	3	11
		.0%	1.9%	3.8%	9.4%	5.7%	20.8%
	1000만원 이하	1	3	4	4	2	14
		1.9%	5.7%	7.5%	7.5%	3.8%	26.4%
	1500만원 이하	2	3	5	7	3	20
		3.8%	5.7%	9.4%	13.2%	5.7%	37.7%
	2000만원 이하	2	1	0	3	1	7
		3.8%	1.9%	.0%	5.7%	1.9%	13.2%
	2000만원 이상	0	0	0	0	1	1
		.0%	.0%	.0%	.0%	1.9%	1.9%
합계		5	8	11	19	10	53
		9.4%	15.1%	20.8%	35.8%	18.9%	100.0%

3) 그러나 홍성군의 남성배우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결혼생활의 행복과 결부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즉, 결혼 생활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하면서도 결혼생활은 여전히 행복한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설문지 응답자 54명 가운데 각기 다른 규모의 비용을 지불한 35명(64.8%)이 현재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였고 13명(24.1%)이 '만족한다'고 답한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응답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남성배우자들이 갖고 있는 체면의식과 비논리적인 사고 혹은 현실도피적인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나. 부정확한 결혼 정보로 인한 갈등

그런데 남성 배우자들이 결혼중개업체에게 느끼는 불만은 보다 더 본질적인 데 있었다. 이는 주로 결혼 당시 결혼중개업체와 주변 친지, 종교단체 등이 이들에게 제시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데에서 비롯되었다. '혼인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충분하고 정확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28명(47.4%)이 '아니다'(27.1%) 또는 '절대 아니다'(20.3%)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부록 표25 참조). 아래 <표 III-4>에 의하면, 이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여성 배우자를 만났을 경우 결혼관련 정보가 가장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종교단체 나 성직자가 나서서 혼인이 성사된 경우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그에 관련된 정보는 결코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표 III-4> 배우자를 만난 경로×결혼정보의 정확성 교차표

		결혼정보의 정확성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배우자 만난 경로	결혼중개업체	2	2	8	13	11	36
		3.6%	3.6%	14.5%	23.6%	20.0%	65.5%
	주변의 소개	4	3	3	1	0	11
		7.3%	5.5%	5.5%	1.8%	.0%	20.0%
	연애	1	3	0	0	0	4
		1.8%	5.5%	.0%	.0%	.0%	7.3%
	종교단체	0	0	1	1	1	3
		.0%	.0%	1.8%	1.8%	1.8%	5.5%
	기타	0	0	0	1	0	1
		.0%	.0%	.0%	1.8%	.0%	1.8%
합계		7	8	12	16	12	55
		12.7%	14.5%	21.8%	29.1%	21.8%	100.0%

홍성군 결혼이주가정의 남편배우자들이 경험한 부정확한 결혼정보는 구체적으로 결혼비용과 배우자 정보였다. '혼인에 관한 결혼중개업체, 주변 사람 혹은 종교단체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 29명 가운데 '결혼비용 내역을 알 수 없다'(17명),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3명)라고 답하였다 (부록 도표 27 참조). 물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남성배우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거나 주변의 사람에게 소개받은 결혼중개업체의 연락처만을 갖고서 몇 가지 기본 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수백 만원에서 천 만원 이상의 비용을 일시불로 무통장 입금시키는 경우가 관례였기 때문이다 (H037과의 면담 2010/10/09).[4]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미리 알고 지급한 비용 자체보다는 그 내역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자신들이 어렵게 마련한 결혼 비용이 처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거나 지불되었더라도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5]이것은 결혼 후 계속되는 여성 배우자들의 불만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여성배우자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의 대부분은 학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 남성배우자의 경우, 자신이 처음 소개받을 당시에는 아내 될 사람의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자신의 이름조차 모국어로 쓰지 못할 정도라고 한탄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대부분의 다른 남성배우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중개업체에 연락하여 이 문제

4) 놀라운 사실은 일부 남성배우자들의 경우 국제결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H005의 경우, 자신의 연로한 어머니를 간병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주변 친구들과 상의한 끝에 인터넷을 검색하였고 그 중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650만 원짜리"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언어소통을 고려하여 한국계 중국인 여성과 혼인하려 하였으나 주어진 시간 내에 배우자를 만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H005와의 인터뷰 2010/10/9).

5) C003과 인터뷰 (2010/7/18).

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이제 와서 연락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본인이 간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051과의 인터뷰 2010/9/4). 이처럼 남성배우자들은 결혼 관련 정보를 얻는데 있어 매우 제한적이고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정보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법한 처리 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래 <표 III-5>에 의하면, 여성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른 남성배우자의 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필리핀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90%)과 캄보디아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75%), 중국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71.4%)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에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가운데 11명(36.6%)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홍성군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이 급증한 점과 관련된 것으로 전술한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행위와 남성배우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5> 배우자출신국가X혼인중개업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교차표

		혼인중개서비스에대한만족도					전체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배우자 출신국	중국	1	1	3	1	1	7
		2.00%	2.00%	5.90%	2.00%	2.00%	13.70%
	베트남	5	3	11	3	8	30
		9.80%	5.90%	21.60%	5.90%	15.70%	58.80%
	필리핀	1	3	5	1	0	10
		2.00%	5.90%	9.80%	2.00%	0.00%	19.60%
	캄보디아	0	2	1	1	0	4
		0.00%	3.90%	2.00%	2.00%	0.00%	7.80%
전체		7	9	20	6	9	51
		13.70%	17.60%	39.20%	11.80%	17.60%	100.00%

2. 가족형성기 남성배우자에 대한 실태 분석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과 그에 따른 능력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 결혼이주여성의 1주일 평균 교육 시간은 3.7시간에 불과하였는데 가사(家事)와 출산 및 육아, 부업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학습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 결과 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정착한 지 9년째 접어들지만 아직도 한국어 쓰기에 자신이 없어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알림장'에 제대로 의견을 적어 보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 국제결혼의 구조 속에서 이주여성에게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낮은 학력의 여성으로 외국어인 한국어 구사력이전에 모국어 사용에 대한 정확성 자체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들이 결혼이주를 하기 전에 한국어를 사전에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회도 거의 없었던 실정이다. 예로써 베트남의 경우 출국 전에 약 4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학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개발은 쉽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과 사회단체가 실시하는 한국어 학습과정에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는 있으나 한정된 교육시설에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충분한 검증을 받지도 못한 채 승급을 받아 중급반 수강생이 한국어 문법과 발음, 쓰기에서 매우 저조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녀양육이나 남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깊은 대화는 역부족이다.

6) 김종욱,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천안시와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가. 언어소통의 장벽

홍성군의 남성 배우자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역시 외국인 아내와의 의사소통이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남성 배우자 59명 가운데 '배우자와 한국어 소통은 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13명(22%)에 불과하였고 '중간이다'가 33명(56%), '아니다'는 6명(10%), '절대 아니다'도 6명(10%)이나 응답하여 대부분(76%)이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38 참조).

아래 <표 III-6>에 의하면, 여성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른 남성배우자의 의사소통은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한국계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들은 비교적 원만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베트남 여성은 비교적 이주한 기간이 짧았고 언어 자체가 서로에게 생소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면 나머지 국가 여성들은 한국에 이주한 지 6년 이상 된 경우로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만했기 때문이다.

<표 III-6> 여성배우자의 출신국가×여성배우자와 한국어소통 정도 교차표

		배우자와 한국어소통은 잘 되는가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배우자	중국	1	4	3	0	0	8
		1.8%	7.0%	5.3%	.0%	.0%	14.0%
	중국 한국계	1	0	0	0	0	1
		1.8%	.0%	.0%	.0%	.0%	1.8%
	베트남	2	2	19	5	4	32
		3.5%	3.5%	33.3%	8.8%	7.0%	56.1%

출신국	필리핀	1	0	8	0	2	11
		1.8%	.0%	14.0%	.0%	3.5%	19.3%
	캄보디아	1	1	2	0	0	4
		1.8%	1.8%	3.5%	.0%	.0%	7.0%
	우즈베키스탄	0	0	1	0	0	1
		.0%	.0%	1.8%	.0%	.0%	1.8%
합계		6	7	33	5	6	57
		10.5%	12.3%	57.9%	8.8%	10.5%	100.0%

그러나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것은 결코 이주여성의 문제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이주한 지 얼마 안 되고 자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여성배우자를 남성배우자가 보듬어주고 먼저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할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남성배우자를 위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48명 가운데 7명이 '매우 그렇다'(14.6%), 17명이 '그렇다'(35.4%), 17명이 '중간이다'(35.4%)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부록 표41 참조).

그런데 문제는 남성배우자들이 여성 배우자의 언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라도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끼는 반면 실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기나 수단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처럼 국고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남성배우자를 위한 Q&A 형식의 상담 프로그램에도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내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단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23명 가운데 7명(29.2%)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고 답하였고 11명(45.2%)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였으며 5명(20.8%)은 '프로그램

이 도움이 안 돼서'라고 밝혔다.

<표 III-7> 군내 거주지역×남성배우자의 지원활동 불참이유 교차표

		남성배우자가 지원활동에 참여 않는 이유				합계
		활동 내용 몰라서	도움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군내거주지역	홍성읍	2	4	3	1	10
		8.7%	17.4%	13.0%	4.3%	43.5%
	광천읍	0	0	1	0	1
		.0%	.0%	4.3%	.0%	4.3%
	홍북면	0	0	1	0	1
		.0%	.0%	4.3%	.0%	4.3%
	금마면	1	0	0	0	1
		4.3%	.0%	.0%	.0%	4.3%
	홍동면	0	0	1	0	1
		.0%	.0%	4.3%	.0%	4.3%
	장곡면	0	0	1	0	1
		.0%	.0%	4.3%	.0%	4.3%
	결성면	1	0	1	0	2
		4.3%	.0%	4.3%	.0%	8.7%
	서부면	1	0	0	0	1
		4.3%	.0%	.0%	.0%	4.3%
	갈산면	0	0	1	0	1
		.0%	.0%	4.3%	.0%	4.3%
	구항면	1	1	2	0	4
		4.3%	4.3%	8.7%	.0%	17.4%
합계		6	5	11	1	23
		26.1%	21.7%	47.8%	4.3%	100.0%

남성배우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군내 최고 중심지인 홍성읍에 거주하는 남성의 경우는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하였던 반면 나머지 농업과 축산업이 주요 경제 활동인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사전에 전달되지 않았거나 생계형 가업으로 인해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홍성군의 남성배우자에게는 한국어가 되었든 외국어가 되었든 이들이 외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지라도 현행 지원체계 속에서는 이들이 보호받기 보다는 오히려 방관상태에 놓여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

나. 남성배우자를 위한 교육의 부족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단지 언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홍성군의 결혼이주가정 남성배우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내의 모국어나 그 나라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54명 가운데 5명이 '매우 그렇다'(9.3%), 16명이 '그렇다'(29.6%), 11명이 '중간이다'(20.4%), 21명이 '아니다'(38.9%), 1명이 '절대 아니다'(1.9%)라고 답하였다 (부록 표40 참조).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점은 지난 10년 이상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 사회를 정착 시키고자 전(全) 사회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동안 남성배우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냐는 것이다. 홍성군 남성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다.

<표 III-8> 군내 거주지역×남성배우자 지원프로그램의 충분 정도 교차표

		지원프로그램이 충분하였는지 여부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군내거주	홍성읍	0	2	6	17	3	28
		.0%	3.7%	11.1%	31.5%	5.6%	51.9%
	광천읍	0	0	0	1	0	1
		.0%	.0%	.0%	1.9%	.0%	1.9%

지역	홍북면	0	0	1	1	0	2
		.0%	.0%	1.9%	1.9%	.0%	3.7%
	금마면	0	0	1	1	0	2
		.0%	.0%	1.9%	1.9%	.0%	3.7%
	홍동면	0	0	2	0	1	3
		.0%	.0%	3.7%	.0%	1.9%	5.6%
	장곡면	0	0	2	1	0	3
		.0%	.0%	3.7%	1.9%	.0%	5.6%
	결성면	1	1	0	1	1	4
		1.9%	1.9%	.0%	1.9%	1.9%	7.4%
	서부면	0	1	0	1	0	2
		.0%	1.9%	.0%	1.9%	.0%	3.7%
	갈산면	0	0	1	2	0	3
		.0%	.0%	1.9%	3.7%	.0%	5.6%
	구항면	0	0	1	4	1	6
		.0%	.0%	1.9%	7.4%	1.9%	11.1%
합계		1	4	14	29	6	54
		1.9%	7.4%	25.9%	53.7%	11.1%	100.0%

위의 <표 III-8> ‘지금까지 남성배우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56명 가운데 ‘매우 그렇다’(1.8%)와 ‘그렇다’(7.1%) 라고 답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91.1%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하거나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홍성군내의 거주지를 변수로 남성배우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충분성을 질문한 결과, 군내 중심지로 알려진 홍성군 및 광천읍과 나머지 농축산지역 모두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충청남도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각 사회단체가 수행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홍성군의 남성배우자들은 그들 자신이 이미 국가와 지역사회 단체의 지원을 받았으나 지원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도표 3-9에 의하면,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남성배우자 16명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제시한 사람이 11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였고,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라고 답한 사람은 3명으로 18.8%에 해당하였다.

<표 III-9> 여성배우자의 출신국가X남성배우자 지원활동에 대한 불만족이유 교차표

		남성배우자 지원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합계
		실질적 도움이 안돼서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돼서	기타	
배우자출신국	중국 한국계	1	0	0	1
		6.3%	.0%	.0%	6.3%
	베트남	8	0	0	8
		50.0%	.0%	.0%	50.0%
	필리핀	1	1	2	4
		6.3%	6.3%	12.5%	25.0%
	캄보디아	1	1	0	2
		6.3%	6.3%	.0%	12.5%
	우즈베키스탄	0	1	0	1
		.0%	6.3%	.0%	6.3%
합계		11	3	2	16
		68.8%	18.8%	12.5%	100.0%

불만족스런 이유에 '기타'라고 답한 2명의 응답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에 진행자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불쾌하였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남성배우자들 사이의 연령차이로 함께 활동하기에 불편했다고 대답했다.

반면 위의 <표 III-9>에 따라 여성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른 남성배우자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베트남과 한국계 중국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배우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따지는 반면

필리핀과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배우자들은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원인을 나타내었으나 저변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더 단순하고 감성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자녀양육 및 교육기 남성배우자에 대한 실태 분석

인간 사회조직의 세포가 가족인 것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의 미래지향적 세포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간에 태어난 다문화 자녀이다. 그러나 유교 문화와 가부장적 권위체제가 도시지역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지리적 특성과 전체 결혼이주가정 남성배우자의 61%가 40대 연령층인 홍성군의 경우 국내인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육아 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된 사실을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남성배우자들에게 보통의 한국 어린이들에 비해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과 이들이 집밖에서 남들에게 차별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남성배우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 다문화가족의 육아에 관련된 차별

남성배우자들이 자신의 자녀가 받게 될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는 달리 실제로 이들이 경험하게 될 불이익은 많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보여준 성숙된 모습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출산 때부터 나타났는데 '자녀를 출산할 때 병원에서 차별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남성배우자 40명 가운데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는 1명이었고 '중간이다'의 경우는 4명(10.0%)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87.5%의 남편들은 병원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차별을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부록 표30 참조). 또한 '자녀가 어머니 국적 때문에 놀림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응답자 30명 가운데 5명(16.7%)만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22명(73.4%)이 '아니다' 또는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홍성군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은 현재 지역사회 내불특정 다수에 의한 인종적 차별은 경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 표36 참조). 특히 남성배우자들의 경우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가 지닌 '외국적인 것'에 특별한 차별을 느끼고 있지 않아서 '자녀가 어머니의 모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응답자 49명 가운데 34명(69.4%)이 '괜찮다'라고 응답하였다 (부록 표35 참조).

그럼에도 서로 다른 문화적 차별성을 극복하고 자녀를 다문화 환경 속에서 원만하게 양육할 것 같은 남성배우자들의 내면 의식이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니었다. 외모와 편견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을 지라도 다문화가족이라는 기본 환경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언어와 문화적 한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이 열등할 수밖에 없다는 잠재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예로써, 아래 <표 III-10>에 의하면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면서 아버지로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남성배우자 37명 가운데 절반가량(18명)이 자기 자식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이 염려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은 여성배우자 의 출신국가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남성배우자가 걱정하고 있는 점이었으며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들의 경우는 따돌림에 대한 우려 외에도 '식사의 적절성'과 '준비물', '예절교육의 내용',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

<표 III-10> 여성배우자 출신국가X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며 염려되는 점간의 교차표

	보육기관에 보내며 염려되는 점	합계

		식사의 적절성	많은 준비물	많은 부모 참가 행사	집과 다른 예절 교육	따돌림에 대한 염려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기타	
배우자 출신국가	중국	0	1	0	0	3	0	2	6
		.0%	2.8%	.0%	.0%	8.3%	.0%	5.6%	16.7%
	베트남	3	3	3	1	8	2	1	21
		8.3%	8.3%	8.3%	2.8%	22.2%	5.6%	2.8%	58.3%
	필리핀	0	0	0	0	5	0	1	6
		.0%	.0%	.0%	.0%	13.9%	.0%	2.8%	16.7%
	캄보디아	0	0	0	0	2	0	0	2
		.0%	.0%	.0%	.0%	5.6%	.0%	.0%	5.6%
	우즈베키스탄	0	0	0	1	0	0	0	1
		.0%	.0%	.0%	2.8%	.0%	.0%	.0%	2.8%
합계		3	4	3	2	18	2	4	36
		8.3%	11.1%	8.3%	5.6%	50.0%	5.6%	11.1%	100.0%

나. 육아와 관련된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만의 애로

홍성군의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들은 외국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른 한국인 부부의 남성배우자보다 특별히 더 개방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선 '자녀를 어떤 식으로 키우길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53명의 남성배우자 가운데 43.4%에 해당하는 23명이 '한국식'으로 키우겠다고 답했고 52.8%에 달하는 28명이 한국식과 여성배우자의 모국식을 겸비한 '혼합식'으로 양육하겠다고 밝혔으며 1명(1.9%)은 '여성 배우자의 모국식'으로 키우겠다고 하였고 나머지 1명은 '기타'항목을 선택하였다 (부록 도표 33 참조). 한편 '자녀를 키우는데 여성배우자와 일을 분담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응답자 37명 가운데 2명이 '매우 그렇다'(5.4%), 2명이 '그렇다'(5.4%), 22명이 '중간이다'(59.5%)라고 답한 반면 10명이 '아니다'(27.0), 1명이 '절대 아니다'(2.7%)라고 답함으로써 보통의 한국 남성배우자들이 보이는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 도표 32 참조).

이러한 전통적, 가부장적 자녀양육에 관한 의식과 행태는 홍성군의 남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염려와 바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아래의 <표 III-11>에 의하면, '현재 자녀에 대하여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36명은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8명(50%)이 '학습 능력', 7명(19.4%)이 '원만한 친구관계', 6명(16.7%)이 자녀양육을 위한 '재정조달', 2명(5.6%)이 '올바른 예절습관'을 선택하였다. 특히 '학습 능력'과 '재정조달' 항목은 남성배우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표 III-11>남성배우자의 나이X현재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염려 간의 교차표

		현재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염려					합계
		학습능력	올바른 예절습관	원만한 친구관계	재정조달	기타	
남성배우자의 나이	20-29세	0	0	0	0	1	1
		.0%	.0%	.0%	.0%	2.8%	2.8%
	30-39세	5	2	1	2	0	10
		13.9%	5.6%	2.8%	5.6%	.0%	27.8%
	40-49세	12	0	6	2	2	22
		33.3%	.0%	16.7%	5.6%	5.6%	61.1%
	50세 이상	1	0	0	2	0	3
		2.8%	.0%	.0%	5.6%	.0%	8.3%
합계		18	2	7	6	3	36
		50.0%	5.6%	19.4%	16.7%	8.3%	100.0%

그러나 정상적인 한국인 부부의 경우와 유사한 이 같은 일반적 특징은 다문화 자녀양육의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지자

홍성군의 국제결혼 남성배우자들은 보통 한국인 남성배우자가 잘 겪지 않는 고충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III-12>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36명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밝혔는데 이 중에서 육아지식과 육아관련 한국어 능력 등 '여성배우자의 능력부족' 항목에 대해 가장 많은 14명(38.9%)이 선택하였고 값비싼 유아용품과 병원비, 교육비 등 '과다한 육아비용' 항목은 12명(33.3%)이 선택하였고 '애로사항이 없다'는 항목은 7명(19.4%), 병원 및 보육기관까지의 '불편한 교통' 항목은 1명(2.8%)이 꼽았다.

<표 III-12> 여성배우자 출신국가×자녀 양육시 가장 힘든 점의 교차표

		자녀 양육시 가장 힘든 점					합계
		여성배우자의 능력부족	불편한 교통	값비싼 유아용품, 병원비, 교육비	애로사항이 없었음	기타	
배우자출신국	중국	1	0	2	3	0	6
		2.8%	.0%	5.6%	8.3%	.0%	16.7%
	중국 한국계	0	0	0	1	0	1
		.0%	.0%	.0%	2.8%	.0%	2.8%
	베트남	11	1	6	2	1	21
		30.6%	2.8%	16.7%	5.6%	2.8%	58.3%
	필리핀	1	0	2	0	1	4
		2.8%	.0%	5.6%	.0%	2.8%	11.1%
	캄보디아	1	0	1	1	0	3
		2.8%	.0%	2.8%	2.8%	.0%	8.3%
	우즈베키스탄	0	0	1	0	0	1
		.0%	.0%	2.8%	.0%	.0%	2.8%
합계		14	1	12	7	2	36
		38.9%	2.8%	33.3%	19.4%	5.6%	100.0%

한편 위의 <표 III-12>을 바탕으로 여성배우자의 출신국가별 남성배우자의 자녀 양육시 가장 힘든 점을 분석해 보면, 베트남 여성이 자녀양육에서 가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베트남 여성이 20대의 연령층에 속한데다가 학력도 고졸 이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4. 가족역량강화기 남성배우자에 대한 실태 분석

다문화가족의 형성부터 정착에 이르는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결혼 부부의 생애주기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가족역량강화기는 자녀가 아동기 혹은 유년기에 접어든 시점을 전제로 할 때 대개 결혼 후 10년을 전후한 시기가 타당하다. 그럼에도 홍성군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결혼 한 지 10년 이상이 되는 남성배우자는 2명(3.4%)에 불과하였고 8년 이상인 남성이 5명(8.5%), 3년에서 8년인 경우가 23명(39.0%), 2년이 채 안 된 경우가 29명(49.2%)으로 대부분이 아직 본격적인 가족역량강화기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남성이 겪는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 우리 정부와 다문화가족 문제에 관련된 각 기관 및 단체가 설정한 생애주기와는 달리 국제결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고충을 탈피하려는 특정 목적을 지닌 결혼이주여성이 있는 실제 현장에서는 결혼준비기와 가족형성기, 자녀 양육 및 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가 순차적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남성배우자들 역시 이주여성과 같은 주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남성배우자 스스로가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경우에는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 여성배우자의 한국어능력검증시험(TOPIK) 교육, 국적 취득, 자동차 면허 취득, 창업을 위한 요리사 자격증, 모국 친청부모 초청 및 방문, 취창업 시도 등이 큰 시간적 격차를 두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 여성배우자의 모국 방문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남성배우자들에게 있어 생애주기별 생활패턴이 순차적으로 정형화되지 않고 동시에 전개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이다. 여성배우자가 주로 집에서 머무르며 한국어 교육과 같이 최소한의 활동에 참가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도를 높여갈 때 남성배우자들은 과다한 결혼비용의 뒷감당과 함께 새로 생겨나는 각종 지출에 직면해야만 했다 (H037과의 인터뷰 2010/9/17). 게다가 같은 외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 같은 정기적인 모임에서 신상 정보들이 드러나고 비교되는 상황에 자신의 아내를 다른 이주여성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는 남성배우자들 고유의 체면과 자존심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H038과의 인터뷰 2010/9/17).

그럼에도 남성배우자들이 외국의 처가를 방문하는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결혼 이후 배우자 처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55명 가운데 '아직 없다'고 답한 사람이 20명(36.4%)이었다. 반면 '1회'라고 답한 경우는 20명(36.4%), '2회'는 8명(14.5%), '3회'는 3명(5.5%) 그리고 '4회 이상'은 4명(7.3%)으로 대부분이 방문한 적이 없거나 1회 방문에 그치고 있었다. 아래의 도표 12에서 주목할 점은 2004년과 2008년 사이에 국제 결혼한 21명의 남성배우자 가운데 한 번도 처가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38%)이 2009년 이후에 결혼한 남성배우자 중 처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40.7%)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2001년과 2003년 사이에 혼인한 남성배우자의 경우(20%)에 비해 볼 때 홍성군 남성배우자가 외국의 처가를 방문하는 사례가 지난 6년 전보다 결코 많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II-13> 결혼한 연도X결혼 이후 처가 방문 횟수간의 교차표

		결혼 이후 처가에 방문한 횟수					합계
		아직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결혼	2000년 이전	0	1	1	0	0	2
		.0%	1.8%	1.8%	.0%	.0%	3.6%

연도	2001-2003년	1	1	1	1	1	5
		1.8%	1.8%	1.8%	1.8%	1.8%	9.1%
	2004-2008년	8	6	2	2	3	21
		14.5%	10.9%	3.6%	3.6%	5.5%	38.2%
	2009년 이후	11	12	4	0	0	27
		20.0%	21.8%	7.3%	.0%	.0%	49.1%
합계		20	20	8	3	4	55
		36.4%	36.4%	14.5%	5.5%	7.3%	100.0%

전술한 대로 홍성군의 남성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지 못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외국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응답자 31명 가운데 58.1%에 해당하는 18명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한 반면 '일이 많고 바빠서'라는 항목에는 8명(25.8%), '기타' 항목에는 5명(16.1%)이 응답하였다 (부록 표 45 참조). 또한 '처가를 방문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36명의 남성배우자들 가운데 19명(48.5%)이 '300만원 이하'라고 답했고 12명(36.4%)이 '500만원 이하', 5명(15.2%)이 '1,000만원 이하'라고 답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개인당 약 478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평균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00만원의 소득자가 471만원, 2,500만원의 소득자가 566만원 그리고 3,500만원 이상의 소득자가 483만원을 지출하였다.

<표 III-14> 남성배우자 연평균 수입X처가 방문 시 드는 비용간의 교차표

		처가 방문시 드는 비용			합계
		3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연평	1,000만 미만	4	0	0	4
		12.1%	.0%	.0%	12.1%

균 수 입	1,000만-2,000만	7	5	2	14
		21.2%	15.2%	6.1%	42.4%
	2,000만-3,000만	2	5	2	9
		6.1%	15.2%	6.1%	27.3%
	3,000만 이상	3	2	1	6
		9.1%	6.1%	3.0%	18.2%
합계		16	12	5	33
		48.5%	36.4%	15.2%	100.0%

나. 여성배우자의 창업 및 취업

국제결혼 가정이 가족역량강화기에 실제로 진입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배우자가 느끼는 큰 부담 요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용인해야 하는 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경우에 홍성군 남성배우자들은 대체적으로 아내의 부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응답한 54명의 남성배우자가운데 19명(35.2%)이 '매우 그렇다', 10명(18.5%)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게다가 9명(16.7%)도 '중간이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70.4%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록 표 49 참조).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남성배우자들이 여성 배우자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해서 동의나 허락의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창업과 취업이 갖는 의미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남편과 아내 두 사람과 가족 모두에 위험요인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남성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창업

혹은 취업을 용인한다고 결심할 때 이것이 반드시 자의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된다. ‘배우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명(59.5%)이 ‘배우자가 원하므로’라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므로’라는 이유를 꼽은 응답자는 13명(31.0%)에 그쳤다 (부록 표 50 참조). 또한 아래 도표 14에 의하면, ‘배우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1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43.8%)이 ‘가사에 소홀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므로’라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일부 농축산지역과 홍성읍에서 많이 나타났다.

<표 III-15> 군내 거주지역X배우자가 취창업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간의 교차표

		배우자가 취창업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					합계
		배우자가 원치 않으므로	살림에 보탬이 안되므로	지원센터의 권고에 따라	가사 소홀과 불량배와 교재	기타	
군내거주지역	홍성읍	0	1	1	4	2	8
		.0%	6.3%	6.3%	25.0%	12.5%	50.0%
	홍북면	1	0	0	0	0	1
		6.3%	.0%	.0%	.0%	.0%	6.3%
	홍동면	1	0	0	0	0	1
		6.3%	.0%	.0%	.0%	.0%	6.3%
	결성면	1	0	0	1	0	2
		6.3%	.0%	.0%	6.3%	.0%	12.5%
	서부면	0	1	0	0	0	1
		.0%	6.3%	.0%	.0%	.0%	6.3%
	갈산면	0	0	0	1	1	2
		.0%	.0%	.0%	6.3%	6.3%	12.5%
	구항면	0	0	0	1	0	1
		.0%	.0%	.0%	6.3%	.0%	6.3%

합계	3	2	1	7	3	16
	18.8%	12.5%	6.3%	43.8%	18.8%	100.0%

여성배우자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성배우자들이 여성배우자의 창업과 취업에서 예상되는 어려움보다는 그로 인한 이익에 더 관심을 갖는 듯한 태도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예로써 '배우자가 취업을 하면 허용할 수 있는 1일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홍성군 남성배우자 26명 가운데 10명(38.5%)은 '8시간 이내', 또 다른 10명(38.5%)는 '6시간 이내', 4명(19.2)은 '4시간 이내'라고 답함으로써 여성배우자의 적정 노동시간은 평균 6.5시간 정도라는 통계를 보였다 (부록 표 53 참조). 게다가 '배우자의 취업과 창업을 통해 벌고 싶은 한 달 수입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답한 남성배우자 43명 가운데 29명(67.4%)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말해 한국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초봉 수준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여성배우자의 1일 평균 6.5시간의 근로시간과 1달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라는 남성배우자의 기대치는 이들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고충 사이에서 혼동을 겪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이 말 그대로 역량강화 단계로까지 성숙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부업을 자율적, 능동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성과이기 때문이다. 남성배우자들이 이와 같은 사고의 모순과 비논리적 이상은 앞으로 더 많은 기관과 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연구자들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홍성군의 적지 않은 남성배우자들이 가정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가 부업을 얻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들의 부적절한 정책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취창업 지원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44명 가운데

12명(27.3%)만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16명(36.4%)이 '아니다', 3명(6.8%)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해 부정적 견해가 더 지배적임을 나타냈다.

<표 III-16> 배우자출신국X지자체 및 다문화가정지원단체의 취창업지원에 만족도 간의 교차표

		지자체 및 다문화가정지원단체의 취창업지원에 만족합니까					합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배우자출신국	중국	3	0	1	1	1	6
		7.0%	.0%	2.3%	2.3%	2.3%	14.0%
	중국 한국계	0	0	0	1	0	1
		.0%	.0%	.0%	2.3%	.0%	2.3%
	베트남	3	3	7	8	0	21
		7.0%	7.0%	16.3%	18.6%	.0%	48.8%
	필리핀	2	1	4	3	2	12
		4.7%	2.3%	9.3%	7.0%	4.7%	27.9%
	캄보디아	0	0	0	2	0	2
		.0%	.0%	.0%	4.7%	.0%	4.7%
	우즈베키스탄	0	0	0	1	0	1
		.0%	.0%	.0%	2.3%	.0%	2.3%
합계		8	4	12	16	3	43
		18.6%	9.3%	27.9%	37.2%	7.0%	100.0%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의 경우 대체로 각 지원단체의 창취업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한국계 중국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아내로 둔 남성은 만족하지 않았다.

Ⅳ. 홍성군 남성배우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

홍성군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에 대한 설문지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성배우자들은 결혼이주여성 못지않게 국제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혼단계부터 이들은 배우자를 정하거나 혼인비용을 지출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족형성단계에서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았으며 이를 극복할 만한 여건이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단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하는 배우자의 무능력을 아쉬워하면서 항상 주변으로부터 자기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가족역량강화단계에서도 이들은 예상보다 일찍 다가온 배우자 모국 방문과 배우자의 부업 문제로 인해 집안의 안정과 물질적 이익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로 고민해야만 했다.

둘째, 남성배우자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보다 더 열악한 조건을 지녔는데 그것은 이들이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기타 사회단체의 관심 및 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각급 지원 기관과 단체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에는 집중하였으나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전용 프로그램은 거의 갖고 있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셋째, 남성배우자들은 국제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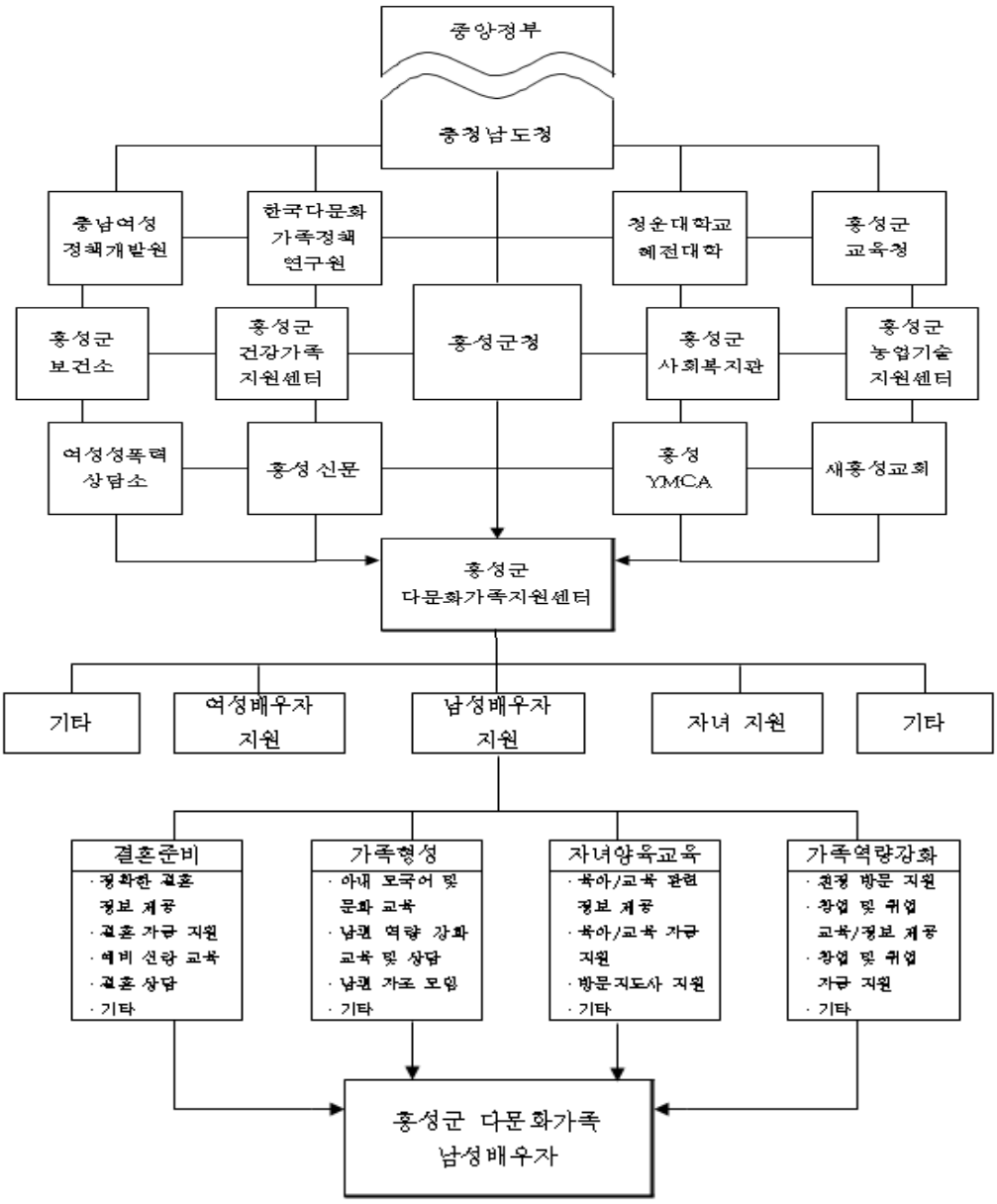
현상을 보이곤 하였다. 적지 않은 현실적인 고충과 상대적인 소외상태 속에서 남성배우자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정부 기관과 단체, 심지어는 여성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반감과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결혼생활은 집안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비용지출에 있어서 즉흥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나타나거나 외형적으로는 태평하나 속으로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포자기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도농지역인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를 위한 지원은 어느 특정 영역의 단일 문제라기보다는 통합적인 틀 속에서 생애주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동시에 이루려는 방법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또한 이는 방법론적으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남성배우자들을 사회보장체계(Social Security Network) 속으로 포용하는 제도화와 지금까지의 열악했던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현실적, 실용적으로 제고(Up-grade)하는 제도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보장체계의 제도화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제도화란 이들을 위한 각종의 지원정부 기관 및 사회단체와 수혜자인 남성배우자간의 긴밀한 소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방치된 남성배우자들을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된 조직 속으로 참여시켜 더 이상 소외당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남성배우자들을 사회보장체계 속으로 네트워킹 화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각 기관과 단체와 남성배우자간의 직접적인 라인 형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회적, 행정적으로 공인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매개로

하는 것이 전제이다.



[그림 IV-1] 홍성군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 통합지원 체계도

이는 남성배우자들을 원격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 간의 간접적 제도화와 이들을 일상생활에서 근접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수혜자간의 직접적 제도화로 구분될 수 있다.

가. 사회보장체계의 간접적 제도화

사회보장체계의 완성은 남성배우자들이 국제결혼 생활에서 직면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존에 결혼이주여성이나 우리 사회 내 자립능력이 불충분한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형식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제반 문제해결과 지원사업을 담당해 온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나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협력기관 등과의 차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중앙정부와의 제도화

중앙정부와의 제도화는 도농지역인 홍성군의 남성배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정부조직 내의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를 위한 법령의 제정, 다문화지원센터 내 남성배우자 지원을 전담할 직원의 확충, 영농관련 지원사업 시범운영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와의 협약 체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화는 비록 서로 다른 라인의 협력 방안에 속하지만 보다 원만하고 목적에 맞는 활동을 위해서 평상시 양자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화는 충청남도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충청남도 도청 및 홍성군과 동 사업의 시행기관인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의 협력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화이다.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한 예산증액, 직원 확충, 남성배우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관한 활동을 포함한다. 양자 간에는 비록 관리감독과 실행주체라는 조직관계가 전제된다고 할지라도 남성배우자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상명하달보다는 홍성군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실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후자에 대한 전자의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자세가 필요하다.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지역협력기관과의 제도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협력기관과의 합리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가장 절실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홍성군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설이 공인되기 10여 년 전부터 이미 지역사회에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서는 많은 부분에서 업무가 중복되었고 이론과 경험 면에서도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역협력기관과의 제도화는 남성배우자들에게 일차적 중요성을 지니므로 홍성경찰서, 홍성군 여성성폭력상담소, 홍성군 보건소, 홍성의료원, 홍성군 농업기술지원센터, 홍성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과 청운대학교, 혜전대학, 폴리테크닉대학 등의 교육기관, 홍성 YMCA, 새홍성교회 등 NGO 및 종교단체 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유형의 제도화에서는 각 구성기관

및 단체의 고유한 직능과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사회보장체계의 직접적 제도화

이번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홍성군 남성배우자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원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타났다. 예로써, 이들에게 '어느 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였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6명 가운데 33명(58.9%)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답했고 6명(10.7%)이 '사회복지관', 5명(8.9%)이 '이주민센터(새홍성교회)', 5명(8.9%)이 'YMCA' 를 꼽았다 (부록 표 19참조). 또한 '남성배우자를 위한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라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52명 중에서 43명(82.7)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꼽았고 그 뒤를 이어 5명(9.6%)이 '청운대학교혜전대학', 3명(5.8%)이 'YMCA' 그리고 1명(1.9%)이 '이주민센터'라고 답했다. 비록 설립된 시간은 3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 동안 다문화가족관련 각종 사업의 성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제 홍성군의 전문기관으로서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남성배우자를 위한 전담부서나 직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된 1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센터소장과 상근직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교육, 문화체험교육,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남성배우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나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직원확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정착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자녀 못지않은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제도화가 필요하겠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남성배우자 전담 지원 부서 및 직원 확충
- 결혼준비, 가족 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가족역량강화 전담을 위한 업무 분장
- 남성배우자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용
-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제도화

사회보장체계의 제도화가 남성배우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제도화는 그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남성배우자 지원을 위한 전담 직원은 중앙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지역협력기관과 평상시 유기적인 의견교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관 및 단체들의 고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질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 결혼 분과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분석에서도 논의하였듯이 대부분의 남성배우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잘못된 결혼시스템에서 시작된다. 도농지역인 홍성군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남성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므로 결혼과 관련된 지원 업무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어야 하고 많은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음의 기능이 마련되어야한다.

- 정확한 결혼관련 정보의 제공 (홈페이지 운용)
- 결혼 자금의 지원 및 융자제도 마련
- 예비 신랑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인센티브제 활용

- 결혼 상담제 운용 및 신부와의 사전 만남의 장 마련
- 기타 업무

나. 가족 형성 분과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특징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국제 결혼 부부의 삶이 그 동안 우리 정부 및 사회단체가 상정한 생애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각 주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용적인 지원사업은 초기단계인 가족형성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각종 프로그램의 양적인 증대보다 국제 결혼 부부가 자신들의 삶을 실속 있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신적 부분과 기본 수단인 언어적 부분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배우자의 모국어 및 해당국의 사회문화 교육
- 남성배우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 실시
- 남성배우자의 자조 모임 및 직능별 동아리 개설
- 기타 업무

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분과

홍성군 다문화가족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기존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도농지역의 출산율 저하를 만회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이들의 평균 출산자녀는 2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부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녀 전부 또는 일부를 모국인 친정에 보내는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에 형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이혼자간의 결합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

복자녀의양육과 교육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자금 지원 및 융자제도 마련
- 방문지도사 제도의 확대 실시
- 기타 업무

라. 가족 역량 강화 분과

다문화가족에게 가족 역량의 강화는 가장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속한다. 동시에 이 분과에서는 다른 어느 분과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업무가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설문지조사와 인터뷰 실시에 의하면 홍성군 남성배우자들의 경우 일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 여성배우자의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 지원
- 여성배우자의 창업과 취업 정보 제공 및 관련 교육 실시
- 여성배우자의 창업과 취업 자금 지원 및 융자
- 기타 업무

Ⅴ. 결론

지난 10년간 한국은 국내의 저출산 문제와 농촌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민족 역사상 일찍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많은 외국인 여성의 급속한 이주가 이루어진데 반해 우리 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빈약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배우자를 소외시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해주체가 되는 사회적 불안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내 다문화가족의 남성배우자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도농지역인 홍성군에 거주하는 남성배우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정량적 분석에 정성적 요인을 더한 통계결과, 홍성군 남성배우자들은 결혼 단계와 가족형성단계, 자녀 양육단계, 가족역량강화단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동시에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최선책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남성배우자들을 결혼이주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포용하고 조악하고 부실했던 남성배우자 지원프로그램을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지난 몇 년

간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확충하고 더 나은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 가운데 한 구성원에 불과한 홍성군의 사례가 남성배우자들을 위한 통합지원책의 모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또한 한정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까지 시도된 적이 없었던 연구로서의 희귀성과 성과는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보완하고 국내 다문화가족에 관한 풍부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보완할 때 그 가치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이근무, 김진숙,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1호 (2009), .pp. 135-162.

최지영,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의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6호 (2009), .pp. 225-254.

이수환,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치관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장은정,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남복현, (2010).

김종욱,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천안시와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다문화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부 록 1. > 각 변수의 빈도표

(표1) 남성배우자의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20-29세	1	1.7	1.7	1.7
30-39세	18	30.5	30.5	32.2
40-49세	36	61	61	93.2
50세이상	4	6.8	6.8	100
합계	59	100	100	

(표2) 남성배우자의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고졸이하	10	16.9	17.2	17.2
고졸	41	69.5	70.7	87.9
전문대졸	5	8.5	8.6	96.6
대졸이상	2	3.4	3.4	100
합계	58	98.3	100	
시스템결측값	1	1.7		
합계	59	100		

(표3) 남성배우자의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농축산업	18	30.5	31	31
자영업(상업)	9	15.3	15.5	46.6
회사원(공무원)	14	23.7	24.1	70.7
기타	15	25.4	25.9	96.6
무직	2	3.4	3.4	100
합계	58	98.3	100	
시스템결측값	1	1.7		
합계	59	100		

(표4) 남성배우자의 연평균 수입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1000만미만	8	13.6	14.3	14.3
1000-2000만	23	39	41.1	55.4
2000-3000만	18	30.5	32.1	87.5
3000만이상	7	11.9	12.5	100
합계	56	94.9	100	
시스템결측값	3	5.1		
합계	59	100		

(표5) 남성배우자의 결혼 연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2000년이전	2	3.4	3.4	3.4
2001-2003년	5	8.5	8.5	11.9
2004-2008년	23	39	39	50.8
2009년이후	29	49.2	49.2	100
합계	59	100	100	

(표6) 남성배우자의 종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기독교	13	22	23.2	23.2
천주교	1	1.7	1.8	25
불교	10	16.9	17.9	42.9
기타	32	54.2	57.1	100
합계	56	94.9	100	
시스템결측값	3	5.1		
합계	59	100		

(표7) 남성배우자의 자녀 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1명	23	39	39.7	39.7
2명	15	25.4	25.9	65.5
3명	4	6.8	6.9	72.4
없음	16	27.1	27.6	100
합계	58	98.3	100	
시스템결측값	1	1.7		
합계	59	100		

(표8) 군내 거주지역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홍성읍	29	49.2	51.8	51.8
광천읍	1	1.7	1.8	53.6
홍북면	3	5.1	5.4	58.9
금마면	2	3.4	3.6	62.5
홍동면	3	5.1	5.4	67.9
장곡면	3	5.1	5.4	73.2
결성면	4	6.8	7.1	80.4
서부면	2	3.4	3.6	83.9
갈산면	3	5.1	5.4	89.3
구항면	6	10.2	10.7	100
합계	56	94.9	100	
시스템결측값	3	5.1		
합계	59	100		

(표9) 여성배우자의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20-29세	42	71.2	71.2	71.2
30-39세	14	23.7	23.7	94.9
40-49세	3	5.1	5.1	100
합계	59	100	100	

(표10) 여성배우자의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고졸이하	26	44.1	44.1	44.1
고졸	19	32.2	32.2	76.3
전문대졸	10	16.9	16.9	93.2
대졸이상	4	6.8	6.8	100
합계	59	100	100	

(표11) 여성배우자 출신국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중국	8	13.6	13.8	13.8
중국한국계	1	1.7	1.7	15.5
베트남	32	54.2	55.2	70.7
필리핀	12	20.3	20.7	91.4
캄보디아	4	6.8	6.9	98.3
우즈베키스탄	1	1.7	1.7	100
합계	58	98.3	100	
시스템결측값	1	1.7		
합계	59	100		

(표12) 여성배우자 출신지역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도시	6	10.2	10.2	10.2
농촌	35	59.3	59.3	69.5
도농지역	14	23.7	23.7	93.2
기타	4	6.8	6.8	100
합계	59	100	100	

(표13) 현재 결혼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배우자와불화관계	5	8.5	8.9	8.9
기타가족과의불화	8	13.6	14.3	23.2
육아및자녀교육	12	20.3	21.4	44.6
경제적어려움	21	35.6	37.5	82.1
기타	10	16.9	17.9	100
합계	56	94.9	100	
시스템결측값	3	5.1		
합계	59	100		

(표14) 부부불화의 유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2	3.4	3.8	3.8
그렇다	2	3.4	3.8	7.5
중간이다	26	44.1	49.1	56.6
아니다	15	25.4	28.3	84.9
절대아니다	8	13.6	15.1	100
합계	53	89.8	100	
시스템결측값	6	10.2		
합계	59	100		

(표15) 지역사회가 본인을 대하는 것에 대한 느낌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이해와존중받음	30	50.8	54.5	54.5
편견과차별받음	14	23.7	25.5	80
아내에비해차별받음	2	3.4	3.6	83.6
잘모르겠음	9	15.3	16.4	100
합계	55	93.2	100	
시스템결측값	4	6.8		
합계	59	100		

(표16) 결혼 행복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16	27.1	30.2	30.2
그렇다	21	35.6	39.6	69.8
중간이다	13	22	24.5	94.3
아니다	2	3.4	3.8	98.1
절대아니다	1	1.7	1.9	100
합계	53	89.8	100	
시스템결측값	6	10.2		
합계	59	100		

(표17) 홍성군 이주여성이 증가할지에 대한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29	49.2	54.7	54.7
그렇다	19	32.2	35.8	90.6
중간이다	4	6.8	7.5	98.1
절대아니다	1	1.7	1.9	100
합계	53	89.8	100	
시스템결측값	6	10.2		
합계	59	100		

(표18) 지원프로그램이 충분하였는지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1	1.7	1.8	1.8
그렇다	4	6.8	7.1	8.9
중간이다	16	27.1	28.6	37.5
아니다	29	49.2	51.8	89.3
절대아니다	6	10.2	10.7	100
합계	56	94.9	100	
시스템결측값	3	5.1		
합계	59	100		

(표19)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원단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다문화가정지원센터	33	55.9	58.9	58.9
사회복지관	6	10.2	10.7	69.6
이주민센터(새홍성교회)	5	8.5	8.9	78.6
YMCA	5	8.5	8.9	87.5
기타	7	11.9	12.5	100
합계	56	94.9	100	
시스템결측값	3	5.1		
합계	59	100		

(표20) 지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활동내용몰라서	7	11.9	29.2	29.2
도움이안돼서	5	8.5	20.8	50
시간이없어서	11	18.6	45.8	95.8
기타	1	1.7	4.2	100
합계	24	40.7	100	
시스템결측값	35	59.3		
합계	59	100		

(표21) 지원활동 참여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12	20.3	26.1	26.1
그렇다	15	25.4	32.6	58.7
중간이다	10	16.9	21.7	80.4
아니다	7	11.9	15.2	95.7
절대아니다	2	3.4	4.3	100
합계	46	78	100	
시스템결측값	13	22		
합계	59	100		

(표22) 지원활동 참여 불만족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실질적도움이안돼서	11	18.6	64.7	64.7
무시당한것같고불쾌해서	1	1.7	5.9	70.6
내용이어려워이해안돼서	3	5.1	17.6	88.2
기타	2	3.4	11.8	100
합계	17	28.8	100	
시스템결측값	42	71.2		
합계	59	100		

(표23) 여성배우자를 만난 경로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결혼중개업체	38	64.4	64.4	64.4
주변의소개	12	20.3	20.3	84.7
연애	5	8.5	8.5	93.2
종교단체	3	5.1	5.1	98.3
기타	1	1.7	1.7	100
합계	59	100	100	

(표24) 결혼 비용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500만원이하	11	18.6	19.6	19.6
1000만원이하	14	23.7	25	44.6
1500만원이하	23	39	41.1	85.7
2000만원이하	7	11.9	12.5	98.2
2000만원이상	1	1.7	1.8	100
합계	56	94.9	100	
시스템결측값	3	5.1		
합계	59	100		

(표25) 결혼정보의 정확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7	11.9	12.7	12.7
그렇다	8	13.6	14.5	27.3
중간이다	12	20.3	21.8	49.1
아니다	16	27.1	29.1	78.2
절대아니다	12	20.3	21.8	100
합계	55	93.2	100	
시스템결측값	4	6.8		
합계	59	100		

(표26) 혼인중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7	11.9	13.5	13.5
그저그렇다	9	15.3	17.3	30.8
중간이다	21	35.6	40.4	71.2
아니다	6	10.2	11.5	82.7
절대아니다	9	15.3	17.3	100
합계	52	88.1	100	
시스템결측값	7	11.9		
합계	59	100		

(표27) 혼인중개서비스 불만족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비용내역을알수없다	17	28.8	58.6	58.6
배우자정보가사실과다르다	3	5.1	10.3	69
불친절하고무성의하다	3	5.1	10.3	79.3
혼인전후에간섭이너무많다	3	5.1	10.3	89.7
기타	3	5.1	10.3	100
합계	29	49.2	100	
시스템결측값	30	50.8		
합계	59	100		

(표28) 출입국 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5	8.5	9.6	9.6
그렇다	11	18.6	21.2	30.8
중간이다	23	39	44.2	75
아니다	6	10.2	11.5	86.5
절대아니다	7	11.9	13.5	100
합계	52	88.1	100	
시스템결측값	7	11.9		
합계	59	100		

(표29) 중개업체를 친지에 권할 수 있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2	3.4	3.7	3.7
그렇다	3	5.1	5.6	9.3
중간이다	26	44.1	48.1	57.4
아니다	19	32.2	35.2	92.6
절대아니다	4	6.8	7.4	100
합계	54	91.5	100	
시스템결측값	5	8.5		
합계	59	100		

(표30) 자녀 출산시 병원에 받은 차별의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렇다	1	1.7	2.5	2.5
중간이다	4	6.8	10	12.5
아니다	27	45.8	67.5	80
절대아니다	8	13.6	20	100
합계	40	67.8	100	
시스템결측값	19	32.2		
합계	59	100		

(표31) 자녀 양육시 가장 힘든 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아내의능력부족(육아지식,한국어)	14	23.7	37.8	37.8
불리한교통(병원,보육기관)	1	1.7	2.7	40.5
값비싼유아용품,병원비,교육비	13	22	35.1	75.7
애로사항이없었음	7	11.9	18.9	94.6
기타	2	3.4	5.4	100
합계	37	62.7	100	
시스템결측값	22	37.3		
합계	59	100		

(표32) 여성배우자와 자녀양육의 분담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2	3.4	5.4	5.4
그렇다	2	3.4	5.4	10.8
중간이다	22	37.3	59.5	70.3
아니다	10	16.9	27	97.3
절대아니다	1	1.7	2.7	100
합계	37	62.7	100	
시스템결측값	22	37.3		
합계	59	100		

(표33) 자녀의 양육방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한국식	23	39	43.4	43.4
배우자모국식	1	1.7	1.9	45.3
혼합식	28	47.5	52.8	98.1
기타	1	1.7	1.9	100
합계	53	89.8	100	
시스템결측값	6	10.2		
합계	59	100		

(표34) 보육기관에 보내며 염려되는 점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식사의적합성	3	5.1	8.1	8.1
많은준비물	5	8.5	13.5	21.6
많은부모참가행사	3	5.1	8.1	29.7
교육된예절이나와달라서	2	3.4	5.4	35.1
따돌림에대한염려	18	30.5	48.6	83.8
다른학부모와의관계	2	3.4	5.4	89.2
기타	4	6.8	10.8	100
합계	37	62.7	100	
시스템결측값	22	37.3		
합계	59	100		

(표35) 자녀가 어머니 모국어로 대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괜찮다	34	57.6	69.4	69.4
원치않는다	3	5.1	6.1	75.5
한국어를희망한다	12	20.3	24.5	100
합계	49	83.1	100	
시스템결측값	10	16.9		
합계	59	100		

(표36) 자녀가 어머니 국적때문에 놀림이나 차별을 받는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2	3.4	6.7	6.7
그렇다	3	5.1	10	16.7
중간이다	3	5.1	10	26.7
아니다	20	33.9	66.7	93.3
절대아니다	2	3.4	6.7	100
합계	30	50.8	100	
시스템결측값	29	49.2		
합계	59	100		

(표37) 현재자녀에 대한 가장 큰 염려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학습능력	18	30.5	50	50
올바른예절이나습관	2	3.4	5.6	55.6
원만한교우관계	7	11.9	19.4	75
교육비등경제문제	6	10.2	16.7	91.7
기타	3	5.1	8.3	100
합계	36	61	100	
시스템결측값	23	39		
합계	59	100		

(표38) 아내와 한국어소통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6	10.2	10.3	10.3
그렇다	7	11.9	12.1	22.4
중간이다	33	55.9	56.9	79.3
아니다	6	10.2	10.3	89.7
절대아니다	6	10.2	10.3	100
합계	58	98.3	100	
시스템결측값	1	1.7		
합계	59	100		

(표39) 아내가 한국어 못하는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능력부족과나태함	5	8.5	16.1	16.1
교육지원방식및교사의부적절함	4	6.8	12.9	29
학습시간의부족	12	20.3	38.7	67.7
한국어교재및사전의부적절함	5	8.5	16.1	83.9
기타	5	8.5	16.1	100
합계	31	52.5	100	
시스템결측값	28	47.5		
합계	59	100		

(표40) 아내의 모국어와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그렇다	5	8.5	9.3
그렇다	16	27.1	29.6
중간이다	11	18.6	20.4
아니다	21	35.6	38.9
절대아니다	1	1.7	1.9
합계	54	91.5	100
시스템결측값	5	8.5	
합계	59	100	

(표41) 남성배우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의사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7	11.9	14.6	14.6
그렇다	17	28.8	35.4	50
중간이다	17	28.8	35.4	85.4
아니다	4	6.8	8.3	93.8
절대아니다	3	5.1	6.3	100
합계	48	81.4	100	
시스템결측값	11	18.6		
합계	59	100		

(표42) 남성배우자 교육에 바람직한 단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다문화가정지원센터	43	72.9	82.7	82.7
이주민센터	1	1.7	1.9	84.6
YMCA	3	5.1	5.8	90.4
청운대학교	5	8.5	9.6	100
합계	52	88.1	100	
시스템결측값	7	11.9		
합계	59	100		

(표43) 배우자에 실망하고 결혼생활이 불행한지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3	5.1	5.6	5.6
그렇다	10	16.9	18.5	24.1
중간이다	12	20.3	22.2	46.3
아니다	22	37.3	40.7	87
절대아니다	7	11.9	13	100
합계	54	91.5	100	
시스템결측값	5	8.5		
합계	59	100		

(표44) 처가에 방문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아직없다	20	33.9	36.4	36.4
1회	20	33.9	36.4	72.7
2회	8	13.6	14.5	87.3
3회	3	5.1	5.5	92.7
4회이상	4	6.8	7.3	100
합계	55	93.2	100	
시스템결측값	4	6.8		
합계	59	100		

(표45) 아직 방문하지 못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경제적여유가없어서	18	30.5	58.1	58.1
일이많고바빠서	8	13.6	25.8	83.9
기타	5	8.5	16.1	100
합계	31	52.5	100	
시스템결측값	28	47.5		
합계	59	100		

(표46) 처가 방문시 드는 비용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300만원이하	17	28.8	47.2	47.2
500만원이하	14	23.7	38.9	86.1
1000만원이하	5	8.5	13.9	100
합계	36	61	100	
시스템결측값	23	39		
합계	59	100		

(표47) 자녀 1명 또는 그 이상을 처가에 맡길 의사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1	1.7	2	2
그렇다	2	3.4	4	6
중간이다	5	8.5	10	16
아니다	22	37.3	44	60
절대아니다	20	33.9	40	100
합계	50	84.7	100	
시스템결측값	9	15.3		
합계	59	100		

(표48) 자녀를 처가에 맡기려는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배우자가원하므로	2	3.4	20	20
양육자가마땅치않아서	3	5.1	30	50
기타	5	8.5	50	100
합계	10	16.9	100	
시스템결측값	49	83.1		
합계	59	100		

(표49) 아내가 취 창업하길 남편이 원하는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19	32.2	35.2	35.2
그렇다	10	16.9	18.5	53.7
중간이다	9	15.3	16.7	70.4
아니다	13	22	24.1	94.4
절대아니다	3	5.1	5.6	100
합계	54	91.5	100	
시스템결측값	5	8.5		
합계	59	100		

(표50) 아내가 취 창업하길 원하는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배우자가원하므로	25	42.4	59.5	59.5
집안살림에보탬을위해	13	22	31	90.5
지원센터및기관의제안에따라	1	1.7	2.4	92.9
배우자친구의요청으로	2	3.4	4.8	97.6
기타	1	1.7	2.4	100
합계	42	71.2	100	
시스템결측값	17	28.8		
합계	59	100		

(표51) 아내가 취 창업하길 원하지 않는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배우자가원치않으므로	3	5.1	18.8	18.8
집안살림에보탬이안되므로	2	3.4	12.5	31.3
지원센터및기관의권고에따라	1	1.7	6.3	37.5
가사에소홀하고불량배와어울리므로	7	11.9	43.8	81.3
기타	3	5.1	18.8	100
합계	16	27.1	100	
시스템결측값	43	72.9		
합계	59	100		

(표52) 아내가 취업시 남편이 희망하는 직종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생산직	12	20.3	30.8	30.8
사무직	8	13.6	20.5	51.3
식당	6	10.2	15.4	66.7
기타	13	22	33.3	100
합계	39	66.1	100	
시스템결측값	20	33.9		
합계	59	100		

(표53) 아내가 취 창업시 남편이 희망하는 1일 근무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4시간이내	5	8.5	19.2	19.2
6시간이내	10	16.9	38.5	57.7
8시간이내	10	16.9	38.5	96.2
8시간이상	1	1.7	3.8	100
합계	26	44.1	100	
시스템결측값	33	55.9		
합계	59	100		

(표54) 아내가 창업시 남편이 원하는 방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자영업	23	39	69.7	69.7
조합	2	3.4	6.1	75.8
기타	8	13.6	24.2	100
합계	33	55.9	100	
시스템결측값	26	44.1		
합계	59	100		

(표55) 아내를 통한 희망 수입액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100만원이하	14	23.7	32.6	32.6
100만원이상	29	49.2	67.4	100
합계	43	72.9	100	
시스템결측값	16	27.1		
합계	59	100		

(표56) 취 창업 정보와 기술을 지원받는 단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다문화가정기원센터	22	37.3	56.4	56.4
사회복지관	2	3.4	5.1	61.5
이주민센터	1	1.7	2.6	64.1
건강가족지원센터	1	1.7	2.6	66.7
YMCA	5	8.5	12.8	79.5
농업기술지원센터	8	13.6	20.5	100
합계	39	66.1	100	
시스템결측값	20	33.9		
합계	59	100		

(표57) 지방자치단체 및 다문화가정지원단체의 취 창업지원에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그렇다	8	13.6	18.2	18.2
그렇다	4	6.8	9.1	27.3
중간이다	13	22	29.5	56.8
아니다	16	27.1	36.4	93.2
절대아니다	3	5.1	6.8	100
합계	44	74.6	100	
시스템결측값	15	25.4		
합계	59	100		

<부 록 2. >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지

본 설문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목적 이외에는 설문 내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청운대학교 교수 김종욱

※응답자 본인에 관한 질문

1. 귀하의 나이는?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④50세 이상 2. 귀하의 학력은? ①고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2년제 대학) ④대졸이상 3. 귀하의 직업은? ①농축산업 ②자영업(상업) ③회사원(공무원) ④기타 ⑤무직 4. 귀하의 연 평균 수입은? ①0~1,000만 미만 ②1,000만~ 2,000만 ③2,000만~3,000만 ④3,000만 이상 5. 결혼한 년도는? ①2000년 이전 ②2000년~2003년 ③2004년~2008년 ④2009년 이후 6. 귀하의 종교는?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기타 7. 자녀의 수와 나이는? ① 남 ( )세 ②여 ( )세 8. 귀하의 현재 거주하는 곳은? 홍성군 _____ (읍/면)

※배우자에 관한 질문

1. 배우자의 나이는?
①20~29세 ②30~39세 ③40~49세 ④50세 이상

2. 배우자의 학력은?
①고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2년제 대학) ④대졸이상

3. 배우자의 출신국가? ( )

4.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①도시 ②농촌 ③도・농지역 ④기타

※결혼생활 전반에 관한 질문

1. 현재의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①배우자와의 관계(불화)
②가족관계(배우자와 부모, 형제 혹은 자녀 간 불화)
③육아 및 자녀 교육
④경제적 어려움
⑤기타( )

2. 부부싸움 혹은 가족과의 불화(不和)가 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3. 이웃 혹은 지역사회가 본인을 대하는 느낌은 어떠합니까?
①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편이다.
②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③아내에게 해주는 만큼 본인에게는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④뭐라 말 할 수 없다.

4. 지금 결혼생활이 행복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5. 장차 홍성군에 결혼이주여성이 계속 늘어 날 것으로 보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다문화가정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

1. 지금까지 남성배우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2.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사회복지관 ⑤이주민센터
②건강가족지원센터 ④YMCA ⑥기타 ( )

3.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프로그램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②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③시간이 없어서
④기타( )

4. 있다고 대답하였다면, 어떤 프로그램이었으며, 어느 정도 만족 하였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5. 불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무시를 당한 것 같아 불쾌해서
③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④기타( )

※혼인 단계에 관한 질문

1. 귀하는 어떻게 지금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①결혼중개업소 ②주변의 소개 ③연애 ④종교단체 ⑤기타

2. 결혼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①500만원이하 ②1,000만원이하 ③1,500만원이하 ④2,000만원이하 ⑤2,000만원이상

3. 혼인이전에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고 정확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4. 귀하의 혼인에 대한 결혼중개업소, 주변 사람 혹은 종교단체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5.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면,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금전적으로 사용내역을 알 수 없어서
②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서
③불친절하고 무성의해서
④혼인단계에서나 그 이후에 간섭이 너무 많아서
⑤기타( )

6. 출입국할 때나 혼인 신고할 때 공무원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7.가족이나 친구에게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을 권할 수 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육아에 관한 질문

1. 자녀를 출산할 때 병원에서 차별을 받았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2.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①배우자의 능력부족(육아지식, 한국어)
②교통문제(병원, 보육기관, 학교 등이 멀었다)
③경제적 문제(유아용품, 병원비, 교육비 등이 비쌌다)
④특별히 없었다. ⑤기타( )

3. 자녀를 기르는데 배우자와 일을 분담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4. 자녀는 어떤 식을 따라 키우시길 원합니까?
①한국식 ②배우자 친정국가방식 ③혼합식 ④기타( )

5. 자녀들을 보육기관에 보내면서 아버지로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①식사가 입맛에 맞을지(알레르기나 아토피로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
②준비물이 많아서
③부모가 참가해야하는 행사가 많아서
④지켜야할 규칙이나 지시사항이 많아서
⑤기관에서의 교육(예절)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⑥따돌림 혹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되어서
⑦다른 학부모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서
⑧기타( )

6. 자녀가 어머니와 외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괜찮다 ②괜찮지 않다 ③가급적 한국어로 대화했으면 한다 ④기타

7. 자녀들이 유치원 혹은 학교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놀림)을 당하거나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8. 현재 자녀에 대하여 무엇을 가장 걱정(염려)하고 있습니까?
①학습 능력(한국어, 사회 등 이해과목)
②올바른 예절이나 습관
③원만한 교우관계(친척, 이웃,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④교육비등의 경제적인 문제
⑤기타( )

※배우자에 관한 질문

1. 배우자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소통(특히 부부싸움할 때)을 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2. 배우자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배우자의 능력부족 또는 나태함
②다문화지원센터 등의 교사 또는 교육 방식의 문제
③실제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함
④교재 또는 사전의 부족
⑤기타 ( )

3. 배우자의 모국어나 출신국가의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4.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성배우자를 위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겠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5. 남성 배우자를 위한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YMCA ③이주민센터 ④대학교 ⑤기타( )

6. 배우자가 매사에 부족하고 현재의 생활을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배우자의 처가에 관한 질문

1. 배우자 처가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차례입니까?
① 아직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2. 아직 방문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처가 식구들을 만나기가 불편해서
③가고 싶으나 생계노동에 바빠서
④번거롭고 귀찮아서
⑤기타 ( )

3. 방문한 적이 있다면, 매회 방문 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300만원이하 ②500만원이하 ③1,000만원이하 ④1,000만원 이상

4. 자녀 가운데 1명 또는 일부를 배우자 친정 가족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5.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배우자가 원하므로
②자녀를 키울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③현재 자녀가 2명 이상이므로
④배우자 친정 가족이 원하므로
⑤기타 ( )

※배우자의 취·창업에 관한 질문

1. 배우자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2.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배우자가 원하므로
②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③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YMCA, 이주민센터, 대학교의 제안에 따라
④배우자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⑤기타 ( )

3.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므로
②집안 살림에 물질적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YMCA, 이주민센터, 대학교의 권고에 따라
④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릴 것 같아서
⑤기타 ( )

4. 취업을 하면 어떤 직종을 갖고 싶습니까? 1일 근무시간은?
①생산직 ②사무직 ③식당 ④기타 ( )/하루 (시간)

5. 창업을 하면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①자영업 ②조합 ③기타 ( )

6. 배우자의 취・창업을 통해 벌고 싶은 금액은?
①30만원이하 ②50만원이하 ③100만원이하 ④100만원이상

7. 취・창업에 관한 정보 수집과 기술 지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YMCA ③이주민센터 ④농업기술지원센터
⑤인터넷 ⑥기타

8. 지방자치단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YMCA, 이주민센터, 대학교의 취・창업 관련 지원에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중간이다 ④아니다 ⑤절대 아니다

감사합니다.